

라우어 'KS 모의고사'



오늘 정규리그 최종전 선발...20여일만에 등판 KIA 최다승 타이...김도영 '40-40' 달성 관심

에릭 라우어가 2024시즌 대미를 장식했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두 팀의 대결이 비로 밀리면서 9월 마지막날 KIA의 최종전이 전개된다.

마운드에 시선이 쏠린다. 이날 KIA는 라우어를 선발로 내세워 최종전을 치른다.

2017시즌 KIA가 기록한 최다 승수와 같은 87승을 노리는 경기이자 한국시리즈 마운드 구상을 위한 실험 무대이기도 하다.

라우어는 지난 12일 롯데전 이후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손톱에 이상이 생기면서 오랜 시간 등판을 쉬었던 만큼 라우어의 컨디션이 우선 관심이 될 전망이다.

라우어의 등판 결과도 중요하다. '메이저리그 36승'에 빛나는 라우어지만 KBO리그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다.

8월 11일 삼성전을 시작으로 9월 12일 롯데전까지 6경기에 나온 그는 30.2이닝을 소화하면서 4.99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를 기록했다.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로 라우어가 자신감을 채우고 믿음을 줘야 한다.

결과만큼 과정보도 중요하다.

KIA는 한국시리즈를 앞두고 자체 연습경기 등을 소화하면서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공을 들인 예정이지만 연습경기는 '진짜 경기'와는 다르다.

라우어가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상대 타자와 수싸움을 하면서 부족했던 KBO리그의 경험을 더해, 한국시리즈를 준비해야 한다.

라우어는 KIA의 'V12'를 위해 마운드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

양현종이 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5이닝 5실점의 아쉬운 성적표를 작성했지만 노련함과 경험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선수다.

2017시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이기도 한 만큼 양현종은 KIA의 '가을잔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마운드 카드다.

여기에 우려와 달리 '에이스' 제임스 네일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1차전 선발 가능성까지 커졌다.

8월 24일 NC 원정에서 턱관절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던 네일은 지난 22일 불펜 피칭을 소화하면서 한국시리즈를 위한 본격적인 체비에 나섰다.

라우어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한국시리즈를 준비하는 KIA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마지막 도전도 KIA의 최종전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김도영은 지난 23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1회말 선두타자 홈런을 날리면서 시즌 38호포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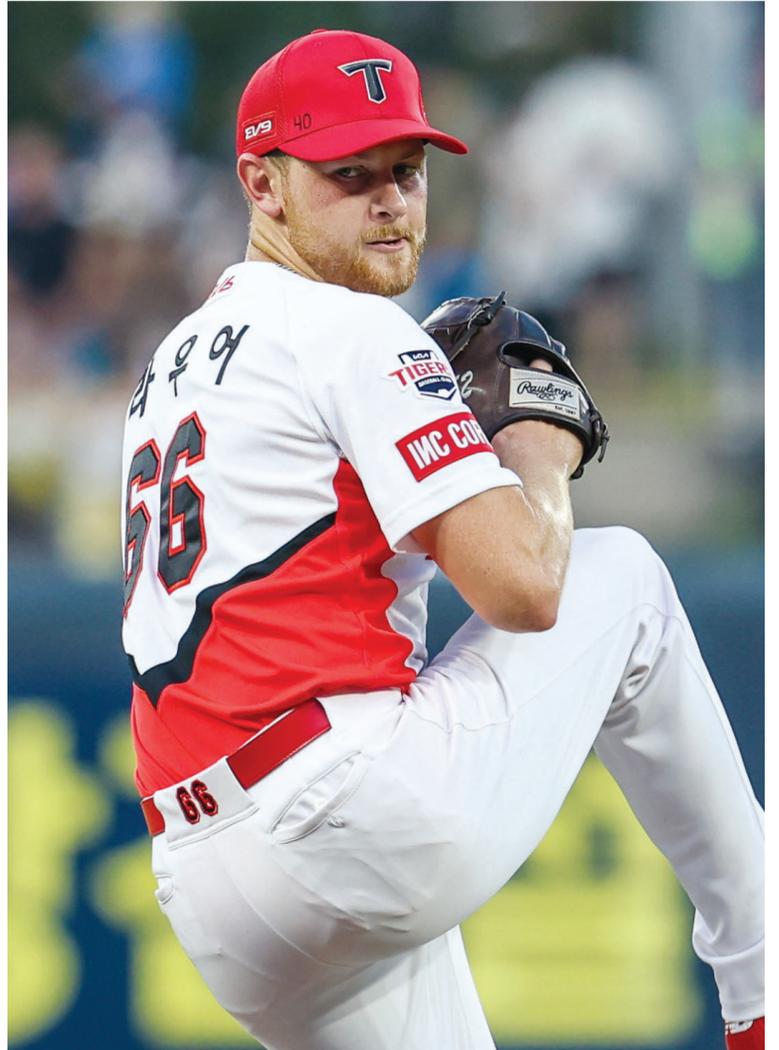
하지만 이후 4경기에서는 3루타 포함 6개의 안타는 추가했지만 담장을 넘기지 못했다.

이제 단 한 경기만 남았고, '40-40'을 위해 필요한 홈런은 두 개다.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다. 김도영은 4월 17일 SSG전, 9월 16일 KT전에서 멀티 홈런을 기록한 적이 있다.

기록의 시즌을 보냈던 김도영이 마지막 경기에서 어떤 성적표를 작성할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에릭 라우어가 3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의 최종전 선발로 나서 한국시리즈 '모의고사'를 치른다. <KIA 타이거즈 제공>

2025 프로야구 3월 22일 개막...144경기

KIA 원정경기...시범경기 3월 8~18일 팀당 10경기씩

2025 프로야구가 3월 22일 개막한다.

KBO가 최근 2024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2025 정규시즌 경기 일정 편성 원칙 등을 확정했다.

내년 시즌 대장정은 3월 22일 시작된다. 팀당 144경기씩 소화하게 되며 격년제 홈경기 편성 원칙에 2025시즌에는 KT, SSG, 두산, 롯데, 한화가 홈에서 73경기를 소화한다.

올 시즌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KIA는 LG,

NC, 삼성, 키움과 홈에서 71경기를 치른다.

정규시즌에 앞서 미리 전력을 점검하는 시범경기는 3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팀당 10경기씩 갖고 우승 도전을 위한 워밍업을 하게 된다.

울스타전은 7월 12일에 열린다. 올 시즌 4일이었던 울스타 브레이크는 울스타전 참가 선수들의 휴식을 위해 6일로 늘어난다.

울스타전 개최 장소는 추후 확정된다.

7월 17일 시작되는 후반기는 개막 2연전과 동일한 대진으로 편성해, 4연전으로 막을 연다.

올시즌 역대급 폭염이 찾아왔던 만큼 기상 상황에 맞춰 더블헤더 편성 기간과 경기 개시시간도 조정했다. 혹서기인 7·8월 일요일 및 공휴일 경기는 1시간 늦춰 오후 6시 시작한다. 9월 이후 경기 시간은 기상 상황을 고려해 조정할 예정이다.

더블헤더 미편성 기간도 확대했다.

3월 및 7·8월에 더블헤더가 열리지 않았지만 내년 시즌에는 3월 및 6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더블헤더가 편성되지 않는다.

또 제2구장(인조잔디 구장)의 경기 편성도 7·8월 혹서기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추추트레인' 마침내 멈춘다

SSG 추신수, 오늘 은퇴 무대 MLB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타자 2021년 국내 복귀 4시즌 존재감



'현역 추신수의 마지막 타석'은 어떤 모습일까.

은퇴를 예고한 올해 추신수(42·SSG 랜더스·사진)는 어깨 통증 탓에 이달 10일 한화 이글스전 이후 타석에 서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승용 SSG 감독은 추신수에게 팀의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리는 30일 인천 키움전에 최소 한 타석을 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신수는 MLB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타자다.

부산고를 졸업한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미국으로 건너간 추신수는 고된 마이너리그 생활을 견디고 2005년 박리구에 데뷔했다.

이후 2020년까지 메이저리그를 누비며 1652경기, 타율 0.275(608타수 167안타), 218홈런, 782타점, 157도루를 올렸다.

출장 경기, 안타, 홈런, 타점, 도루 모두 '코리안 빅리거' 최다 기록이다. 20홈런-20도루 달성(2009년), 사이클링 히트(2015년) 등 MLB 아시아 최초 기록도 세웠다.

2021년 추신수의 KBO리그 입성은 한국 야구의 가장 놀라운 뉴스였다.

전성기가 지난 뒤에 KBO리그로 왔지만, 특유의 출루 능력은 여전했다.

추신수는 29일 현재 KBO리그 4시즌 통산 출루율 0.388을 기록 중이다. KBO 통산 성적은 타율 0.263, 54홈런, 205타점, 51도루다.

KBO 타자 최고령 기록은 모두 바꿔냈다.

추신수 전에 KBO리그 타자 최고령 기록은 대부분 펠릭스 호세(전 롯데)가 보유하고 있었다.

1982년 7월 13일에 태어난 추신수는 올해 7월 24일 수원 KT전에서 '42세 11일'의 나이로 선발 출전해 1회초 2루타를 쳤다. 7회에는 타점도 올렸다. 이날 추신수는 KBO리그 타자 출장, 안타, 타점 최고령 기록을 경신했다.

8월 3일 대구 삼성전에서는 4회 솔로포를 터뜨려 42세 21일의 최고령 홈런 신기록을 세웠다. 다음

날에도 홈런을 작렬했다.

추신수는 이호준(현 LG 코치)이 보유했던 최고령 도루 기록(41세 6개월 25일)은 3월 23일 인천 롯데전에서 일찌감치 경신했고, 8월 9일 두산과의 홈 경기에서 2루를 홈치며 42세 27일로 자신의 기록을 늘렸다.

추신수가 예상대로 30일 키움전에 출전하면 최고령 출장 기록은 42세 2개월 17일로 더 늘어난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추신수는 빛났다.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몇 때도 비시즌에 한국을 찾아 중추성심학교, 유소년 야구, 난치병 환자, 소방관 가족 등을 위해 고액을 쾌척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리그 경기가 열리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마이너리거 191명 전원에게 1000달

러씩 생계 자금을 지원했다.

KBO리그에서 뛴 2021년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선행을 펼쳤다.

추신수는 2021년 SSG와 계약하자마자 당시 연봉 27억원 중 10억원을 기부했다. 이 외에도 SSG 저연봉 선수에게 야구용품을 후원하고, 부산 모교와 SSG 연고지 인천에 있는 학교 야구부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은퇴 시즌인 올해에도 선행을 이어가며 4년 동안 외부에 알려진 것만 해도 30억원의 거액을 기부했다.

KBO리그에서 뛴 시간은 4년으로 길지 않았지만, 추신수는 경기장 안팎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마지막 타석에서도 추신수는 전력을 다할 생각이 다.

/연합뉴스

악! 김하성 어깨수술로 시즌 마감 'FA 떡구름'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사진)이 결국 어깨 수술로 시즌을 마감한다.

포스트시즌 출전이 무산된 것은 물론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추진할 장기 계약에도 떡구름이 끼었다.

미국프로야구(MLB) 샌디에이고 구단을 취재하는 MLB닷컴의 AJ 캐서벨 기사는 29일 마이크 실트 샌디에이고 감독이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하성의 시즌 아웃을 발표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알렸다.

이어 몇 분 후 김하성이 어깨를 수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하성은 캐서벨 기사를 비롯한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팀에 복귀해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올 시즌은 끝났다. 무척 실망스럽고 좌절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하성은 8월 19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경기 중 상대 투수의 견제 때 1루에 슬라이딩하고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더그아웃으로 들어왔다.

이후 어깨 염증 증세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 복귀를 준비했지만, 회복 속도가 더디 근심을 안겼다. 유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송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끝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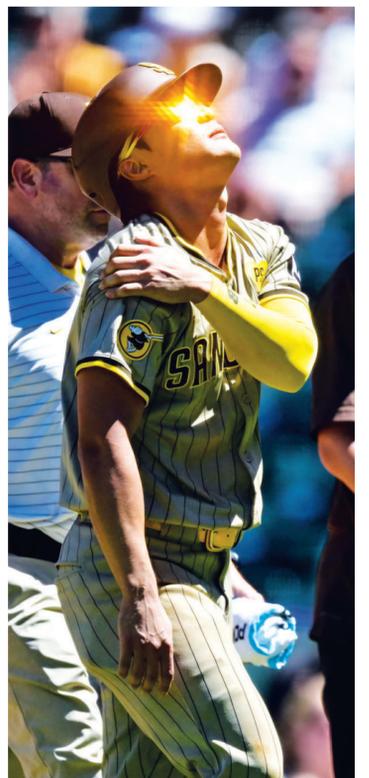
이로써 김하성은 타율 0.233, 홈런 11개, 타점 47개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

갑작스러운 수술로 김하성의 시즌 후 행보가 관심의 초점이 됐다.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와 계약기간 4+1년에 보장 금액 2800만달러,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했다.

보장 금액 중에는 바이아웃 2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올해까지 4년을 뛴 김하성이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1년 연장하면 2025년 연봉 800만달러를 받는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의 '전별금' 200만달러를 받고 시즌 후 FA로 나와 1억달러 이상의 장기 계약을 꿈꿨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깨 수술로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2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샌디에이고도 불박이 유격수 없이 대체자로 포스트시즌을 치러야 하는 달밭 상황을 겪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